



* 등급정보 (닭고기) *

▷ 20개 업체에서 생산한 3백40만수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1백17만9천수(34.7%), 1등급은 2백5만2천수(60.3%)를 차지, 전월(19개 업체, 3백29만8천수)대비 10만2천수(3.1%)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9년 1~5 월	13,275,485	4,594,410	7,634,679	1,046,396
	(100.0)	(34.6)	(57.5)	(7.9)
'09년 4월	3,298,000	1,181,643	1,936,639	179,718
	(100.0)	(35.8)	(58.7)	(5.4)
'09년 5월	3,400,029	1,178,948	2,051,515	169,566
	(100.0)	(34.7)	(60.3)	(5.0)

* 축산뉴스 (닭고기) *

‡ 보신용 축산물 각광, 삼계탕용 생닭 불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특히 5월 들어 삼계탕용 생닭 등 보양식 재료가 불티나게 팔렸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계탕용 생닭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6%나 늘었다. 이마트도 지난 5월 삼계탕용 생닭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0%나 증가했다. 주로 초여름에 인기를 누리던 생닭 등 보양식 상품들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5월부터 성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롯데마트는 한우 꼬리와 사골 매출이 지난해보다 215%, 57%씩 늘었다고 집계했다. 이처럼 보양식 재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유통업체들은 여름철 특화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 브라질 사디아, 페르디가오 인수 확정

브라질 식품회사 사디아가 닭고기 전문업체 페르디가오를 인수하기로 확정지었다고 지난 5월 19일 볼

룸버그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가공 식품 전문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산 오리가공육제품에서 항생물질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13일 수입신고 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제품 3.8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1.0ppb이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처리했다고 지난 5월 25일 밝혔다. 검역원은 중국 하남성에 위치한 해당 수출직업장에서 생산된 오리가공육제품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검역대기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오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검역원은 이미 수입검역이 완료돼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수출직업장의 제품 190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출고를 보류했다.